



# 술버릇 고쳐야 세상이 바뀐다

이유명호/남강한의원장,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

**새** 천년이 온다는 막연한 기  
대에 부풀어 잤아진 송년  
회와 술자리에 12월은 짧  
기만 했다. 지난 번 필자였던 고  
은광순 원장과 함께 IT잡지-남성  
들은 '이크'라고 부르거나 송년  
모임이 끝난 후 예약택시를 기다  
리고 있을 때였다.

'그린콜'이라는 회사는 장애  
인을 많이 고용하며 전화예약을  
받고, 직접 지체나 시각장애인의  
이동봉사도 하는 좋은 회사이다.

푸른 예약등을 켜 택시가 우  
리 앞에 선 순간 술취한 남성이  
올라타서 막무가내로 내리지 않  
았다. 불쌍한 술꾼인데 착한 누나  
들이 돌아서 거주지라며 선심을  
쓰고 가던 중에도 술주정은 계속  
되었다.

"네까지것들... 나 OO이사  
야. 까물지 말고 조용히 해, 여자  
들이..."

요즘 '아줌마 건들지마, 다  
쳐'라는 카피도 모르는지 회사  
망신에 협박까지. 아무리 바빠도  
세상 바꾸는 좋은 일을 외면할  
아줌마들이 아니지.

"아저씨 봐주려고 했는데 안  
되겠네요. 경찰서로 갑시다."  
했더니 마술주문이라도 외운듯  
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호기(?)있  
게 웃돈까지 더 주고 내렸다.

모처럼 스파링(?)을 하려던  
우리는 길이 빠져 버렸다. 그래도  
기사아저씨까지 셋이서 화기 통  
쾌하게 웃으며 공짜로 집에 왔다.

먹고나면 괴로운 줄 알면서도  
늘 마셔대는 술꾼은 정말 불쌍  
하다. 머리는 깨질 듯 아프지, 어  
지럽고, 느긋거리고, 속은 뒤집어  
지지, 팔다리는 노곤해서 힘이 쪽  
빠진다.

뒀라도 먹어서 속을 달래보려  
해도 위는 파업사태-허구역에 쓴  
물만 올라온다.

이럴때 콩나물국, 북어국이  
해독제인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.

한약중에는 취꽃과 취이 주재  
료로 들어간 갈화해성탕과 대  
금음지탕의 효과가 대단하다.

습관성 주당과들에게 임상실  
험을 한 결과 그렇게 죽겠다가도  
한잔만 마시면 발떡 일어나서 발  
이 들어 간단다.

그렇다고 술개는 약을 믿고  
살아가도 좋은가? 그건 아니다.

새희망, 새날이 온다는데 우  
리의 음주문화-술버릇도 바뀔 때  
가 되지 않았을까?

술과 함께 흥청거리는 뒷거  
래, 접대 음주가 부패와 부조리를  
넣고 IMF도 몰고 온 것을 진심으  
로 반성하고 넘어가야 한다.

지금도 눈가리고 아옹하는 사

이 나라 빛은 늘어만 간다는데  
이럴 때 술타령의 거품도 몰아냈  
으면 좋겠다.

불가능한 것은 없다. 한줄로  
서기 운동이 점점 퍼지는 것처럼  
술 적게 마시기 결심을 하면  
반은 성공이다.

일본의 맥주잔은 우리의 절반  
밖에 안된다. 맥주 많이 마시게  
하기 위해 유리잔이 큰 것은 아  
닌지 의심도 해보아야 한다.

나는 맥주를 소주잔에 마시는  
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것  
도 소주처럼 몇잔 마시면 취한다  
고들 한다.

짜짜하기 보다는 감쪽하고 끔  
장히 경제적이다. 그러나 실수로  
많이 먹었다면 약 몇 알로 몸 안  
아프기를 바라지 말고 몸이 보  
내는 고통의 신호를 진지하게  
느껴야 한다.

진통제의 고통을 속이는 얇은  
피 보다는 몸이 직접 반성문을  
쓰는 것이다.

위세포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 
영원히 재생하는 것이 아니다.

손상을 계속 받으면 결국 과  
사를 일으키고 무서운 악성변화  
가 일어나기 쉽다.

그러므로 묵묵히 일하는 고마  
운 몸은 건강할 때 무리하지 않  
도록 소중하게 돌봐야 한다.